

수영 손세운 대회 3관왕 등극 순항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어제 울산서 개막 자유형 100m 3년 연속 금... 양두경 육상 800m 은

손세운(아라중)이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수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3관왕을 향해 순항하기 시작했다.

손세운은 16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수영 자유형 100m S7-S8에서 1위로 골인했다. 손세운은 이로써 제15회와 제16회에 이어 이 종목에서만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예정된 자유형 100m와 배영 5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2년 연속 대회 3관왕에 등극할 전망이다.

앞서 제15회 대회 때는 배영 50m 은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에 실패했다.

이날 울산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진 남자 육상 T20 800m에서 양두경(서귀포은성학교)이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또 남자 창던지기 F20(고)에서 부승현(제주영송학교)은 9위를 기록했다.

제주선수단은 대회 이틀째인 17일 7-9개의 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께 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

망울’ 화합과 희망의 축제 한마당인 이번 대회는 16일 오후 울산시 동천체육관에서 ‘꿈꾸는 고래들이여, 희망의 바다로’를 주제로 화려한 개회식을 갖고 오는 19일까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개회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의 이야기와 신명나는 타악 퍼레이드, 역동적인 비보잉 공연 등 함께 만드는 퍼포먼스와 거센 폭풍과 천둥을 표현하는 영상과 레이저 연출, 실물 대형 고래 조형물의 비행 등 화려한 퍼포먼스를 결합한 복합공연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도전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3479명(선수 1639

명, 임원 및 관계자 1840명)이 참가하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들이 각자 17개 시도를 대표해 경기에 나서게 된다. 대회 종목은 장애인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인 5개 육상종목과 생활체육종목 위주의 10개 보급종목, 2개 시범·전시종목 등 17개 종목이다.

개회식에서 내년 개최지인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입장한 제주 선수단은 육상과 수영, 탁구, 실내조정, 승련, e-스포츠 등 6개 종목에 선수 33명을 비롯 임원 및 보호자 82명 등 모두 115명이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 기자 sycho@halla.com

‘월클’ 임성재 우승 기운 이어지나...

‘SK텔레콤 오픈 2023’ 18~21일 제주 핑크스GC 개막전 우승자 고군택 등 제주출신 7명 출사표

‘월클’ 임성재의 KPGA 코리안투어 우리금융챔피언십 역전우승의 기운이 제주에서 제주출신 골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K텔레콤 오픈 2023’이 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 핑크스GC 동, 서코스(파71. 7326야드)에서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국가대표 선수 3명을 포함 총 147명이 나선다. 총상금은 13억 원, 우승상금은 2억 6000만 원 규모다. 우승자에게는 투어시드 4년, 제네시스 포인트 1200포인트가 부여된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제주출신 선수들도 총출동한다. 임성재는 PGA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KPGA 무대에서 가장 좋은 성적

을 내고 있는 고군택을 비롯 최승빈, 현정협, 하중훈, 한재민, 김승현과 국가대표인 김현욱까지 모두 출격한다.

2023 시즌 개막전 우승자 고군택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고군택은 개막전 우승 이후 부침을 겪기도 했다. 우승 바로 다음 대회인 골프존 오픈 in 제주부터 제42회 GS칼텍스 매경오픈까지 3개 대회 연속 컷탈락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공동 49위로 대회를 마감하며 반전의 신호탄을 쏘았다.

골프존 오픈 in 제주에서 공동 5위에 오른 최승빈과 베테랑 현정협, 하중훈 등도 대회를 거듭하면서 기량을 유지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대표 김현욱은 패기를 살려 나름 활약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기자

임진희·현세린·고지우 매치퀵 “도전”

KLPGA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오늘 개막

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인 임진희(24·안강건설)와 현세린(22·대방건설), 고지우(20·삼천리) 등 제주출신 골퍼들이 KLPGA 투어의 유일한 매치 플레이 대회인 두산 매치플레이챔피언십(총상금 9억원)에서 정상도전에 나선다.

17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 라데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홀마다 타수가 적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총 18개 홀에서 누가 더 많이 이겼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조별리그 세 경기와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전 등 닷새 동안 최대 7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동안 2년 연속 우승한 선수는 아직 없다.

4인 1조로 조를 편성해 리그전을 치른 뒤 각 조에서 1위만 16강전에

진출한다. 이후 16강, 8강, 4강, 결승, 3·4위전을 치르며 순위를 가른다.

개막에 앞서 16일 실시된 조편성에서 2021시즌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하는 임진희는 김민주, 정슬기, 김우정과 12조에 묶였다. 또 2022 정규투어 상금순위 60위 이내 선수로 참가하는 고지우와 현세린은 각각 11조와 15조에 편성됐다. 11조는 고지우, 박현경, 정연주, 김해림이, 15조는 현세린, 한진선, 유효주, 김리안이 한 조가 됐다.

임진희가 조 1위로 16강전에 오르게 되면 정윤지, 배소현, 박결, 유서연이 속한 5조 1위와 맞붙게 된다. 고지우가 포함된 11조 1위는 박지영, 최은우, 이다연, 배수연이 편성된 6조 1위와 8강전 진출 티켓을 놓고 대결한다. 현세린이 있는 15조 1위는 박민지, 전예성, 김지영 2, 이주미가 속한 2조 1위와 격돌하게 된다. 조선일보 기자



16일 오후 울산시 동천체육관에서 ‘꿈꾸는 고래들이여, 희망의 바다로’를 주제로 열린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제주선수단이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응원에 답례하고 있다.

서귀포축구센터 나 홀로 본선 행

제47회 문체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오현고·서귀포원인FC는 예선탈락 ‘고배’ 5월 전국대회 제주 8팀 중 1개 팀만 생환

서귀포축구센터만이 유일하게 5월 개최 전국대회에서 살아 남았다. 서귀포축구센터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출장소 축구장에서 열린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

관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예선 7조 3차전에서 고양FC를 맞아 양준석의 오버 헤드트릭을 포함 송민이골과 상대자책골까지 묶어 9-0

으로 승리하며 2승 1패의 전적으로 대구공고에 이어 2위로 18강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다.

서귀포축구센터는 앞서 열린 예선 1차전에서 대구공고에 0-2로 석패했지만 2차전에서 부산기장FC를 3-1로 꺾었다. 하지만 함께 출전한 오현고와 서귀포원인FC는 예선 관문을 넘는데 실패했다. 오현고는 이날 김천 성의고 구장에서 열린 예선 8조 2차전에서 경기 양주브레멘에 0-1로 패하며 2패의 전적으로 대회를 끝내야 했다. 1차전에서 서

울YC목동에 1-3으로 패했다.

서귀포원인FC도 충남 신평고에 0-15로 대패하면서 예선전적 1승 2패 조 3위로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이로써 5월 고교축구대회에서 제주지역 8개 학교 및 클럽 팀 중 서귀포축구센터만이 본선무대를 밟게 됐다.

대한체육회장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금강대에 서귀포고와 제주중앙고가 출전했다. 또 무학기에 제주제일고가 참가했으며, 금석배에 대기가 출격했다. 조선일보 기자

올바른 지식, 깨끗한 미래

태양광 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 제주솔라에너지 지식 캠페인 - 5

Q: 수상태양광 설치로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A: 실증조사 결과 수질 및 생태계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2차리에 걸친 수상태양광 주변 수질 및 퇴적물 분석 결과,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상태양광 주변 환경 분석 결과, 일반지역과 생활환경 기준 항목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조사 수치는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보다 낮아 환경적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입지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시설 안전성, 경관 영향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
-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담·저수지 수면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는 경우 수도용 자체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오염물질 미발생 내습형 모듈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사업 착공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간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발생시 즉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연적인 빗물 또는 지하수 수돗물을 사용하여 세척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솔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선반남2길 31 www.jejuSolar.co.kr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 풍력발전 바로알기」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